제 2 장

하나님, 제일의 우주적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창 1 : 1).

태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읍니까? 고대 이집트의 현인들은 나일강의 진흙에서 우주의 알이 만들어졌다고 하였읍니다. 고대 갈대아 사람들은 세계가 마르둑에 의해 살해된 괴물 티아마트의 편편한 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읍니다. 힌두교의 성전인 리그베다(*Rigveda*)의 찬송시에 따르면, 세계는 기괴한 거인의 잘라진 수족으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현대의 진화론자는 세계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우연적인 기회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와 세속적인 물리학자는 둥근 불덩어리가 공간을 통해 폭발하고 퍼짐으로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 계셨읍니다.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고

하나님에 대한 사고는 인간의 마음에 본유적이고, 직관적이며,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의 위

대한 신학적인 서술에 대한 근거를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고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성서의 진리를 확증할 수 있읍니다.

헬렌 켈러(Helen Keller)는 맹인이며 귀머거리이며 벙어리였읍니다. 헬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촉각이었읍니다. 이 촉각이야말로 헬렌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읍니다. 마침내 설리번 선생은 이 촉각을 사용하여 헬렌에게 다가갔으며, 또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했읍니다. 그러자 헬렌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제 인생의 모든 나날동안 저는 하나님을 배웠읍니다".

인간의 성품과 이성적인 정신에 뿌리박혀 있고 세워져 있는 어떤 위대한 진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거되거나 폐기되거나 부인되어질 수 없읍니다. 이 진리는 모두에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읍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의 구조적인 체질의 인식론적인 기능에 속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읍니다. 어떤 하나의 전체는 그 부분들 중 하나 보다는 더 큽니다.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입니다. 수학의 공식에서 2+2=4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들은 우리에게 선험적입니다. 그것들은 직관적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읍니다.

우주는 어디서든, 우주의 모든 곳에서, 법칙과 목적과 지성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인간의 성품은 도덕적으로 민감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들은 부인되어질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법칙과 목적과 지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의 성품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감성은 누가 창조하였읍니까?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인생 자체의 성품에 기초해 있는 모든 인류의 이 공통 요소가 원인, 이유, 실체가 없다고 선언하는 세속주의자, 진화론자,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유물론자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이 공통 요소가 맹목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가설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의 학문적인 세계를 설복시킵니다. 그

들은 이상하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폐기시키지 못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들의 수고는 마치 추선을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추를 놓게되면, 즉시 그것은 원래 수직적인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갖 이상과 어리석음으로 싸여지고 삐뚤어질 수 있읍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즉시 그 이전의 위치를 찾아, 똑바르게 수직으로 뻗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명을 요구하는 어떤 현상과 진리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읍니다. 모든 인류는 무한한 감각,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의 영광과 기이함의 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녹음이 무성한 땅의 놀라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각이 있읍니다만, 그 감각은 하나님의 실재와 존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막연합니다. 무한한 우리의 감각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눈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있게 하는 빛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게 하는 소리를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촉각은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친밀감과 애정은 사랑할 어떤 사람을 전제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마실 물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먹을 음식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망, 우리의 도덕적 감성, 우리의 종교적 감정은 물질적인 사물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어떤 것을 전제합니다. 사물은 만든 사람을 상기시킵니다. 만든 사람은 지성을 상기시킵니다. 지성은 인격을 상기시킵니다. 인격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 싼 무한은 우리 위에 있고, 우리를 넘어서 있으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아래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든 자는 누구든지 간에 명공(名工)이라는 것을 압

니다. 명공의 지성이 없다면 그러한 걸작은 있을 수 없읍니다. 명공은 그 지성의 도움을 받아, 결국 호머의 『일리아드』, 버질의 『아이네이드』,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햄릿』, 존 밀턴의 『실락원』을 쓰게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대가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라파엘로의 「시스틴 마돈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란 작품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공이 지성에게 붙들릴 때,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작곡되게 됩니다. 명공이 지성에게 붙들릴 때, 우리가 세계의 놀라운 박물관에서 감탄하며 바라보는 위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명공이 지성에게 붙들릴 때, 알렉산더가 대헬라 제국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명공이 지성에게 붙들릴 때, 우리가 우리 둘레와 우리 위에 볼 수 있는 세계의 영광들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여기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읍니다. 이 창조세계에서 우리는 우주적으로 지성, 정신, 선택,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어느 작은 소년이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 가정의 중요한 손님은 어느 물리학 교수였읍니다. 어른들이 이야기 할 때, 이 작은 소년은 할 수 있는 한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였읍니다. 대화는 마침내 세계 전반과 물리학자에게 자연스런 주제가 될 수 있는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에게로 옮아갔읍니다. 작은 소년은 그렇지만, 세계에는 수백만 개의 물질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읍니다. 교수는 "아니다. 얘야. 전 세계에는 단지 103개의 다른 원소가 있단다"라고 하였읍니다. 소년은 "오, 나 자신만 해도 수백만 가지는 알고 있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그 교수는, "그러면, 얘야, 그 중 몇 가지만 말해보거라"라고 하였읍니다. 그 소년은 탁자를 바라보다가 "소금"하고 말했읍니다. 그 교수는, "얘야, 소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단다. 즉 그것은 나트륨이라 하는 하얀 금속 원소와 염소라 하는 작은 가스 조각인데, 이 두 요소가 합하여 소금이 된단다"하고 말했읍니다. 그 소년은 다시 "물"하고 말했읍니다. 그 교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

니다. "물은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단다. 즉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합하여 물이 된단다." 그 소년은 다시 "공기"라고 말했읍니다. 그 교수는 답변하기를, "공기는 세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단다. 즉 질소 79와 산소 21, 그리고 소량의 탄산 또는 이산화 탄소인데,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원소들의 결합이 바로 공기를 만든단다"라고 하였읍니다. 전체 세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면 103가지의 다른 원소들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지성을 더해야 합니다 !

그것은 수학에서도 같습니다. 수학은 다음과 같이 열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 1, 2, 3, 4, 5, 6, 7, 8, 9, 그리고 0. 이 열 가지 요소 외에 지적인 정신이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미적분학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읍니다.

문학의 세계에서는 영어의 경우 스물 여섯 가지의 요소 또는 알파벳 문자가 있읍니다. 지성은 그 스물 여섯 가지 요소를 취하여 시편 23편, 게티스버그 연설문, 또는 아름다운 어떤 시와 세계 문학과 같은 문학 작품을 창조해 낼 수 있읍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 건반의 한 옥타브가 여덟 음정을 갖고 있고, 이 음정은 다음 옥타브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검은 건반의 음정이 두세개씩 놓여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두 계산하면 열 두 가지 다른 음정이 있읍니다. 그 열 두 음정이 지성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103 원소를 취하셔서 그의 무한한 계획과 지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기회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논리에 깊이 심취하여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나는 수학의 열 가지 요소를 공중에 던져놓고 그것들이 우연히 대수학 또는 삼각법, 또는 미적분학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떨어

져 나타난다면, 나는 그 가설적인 이론을 믿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어 알파벳 스물 여섯 문자를 취해 공중에 던져서, 그것들이 우연히 알프레드 테니슨 경의 위대한 작품과 같은 것을 이루어 떨어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음악의 열 두 음정을 취해 공중에 던졌는데, 거기서 리차드 바그너의 결혼 합창곡이 나왔다면 나는 그 이론을 믿을 것입니다. 어떤 인쇄 공장이 폭발했는데, 우연히 완전한 사전이 만들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목적없는 우연한 사건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열역학에는 엔트로피라 불리는 법칙이 있읍니다. 엔트로피 법칙(entropy law)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은 무질서해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동차의 엔진이 부속이 빠지거나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면, 수리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점차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무질서로 떨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막는 지성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그러한 경향을 띨 것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프레드 테니슨의 「모래톱을 건느며」라는 시에서 문자들을 취해 공중에 던진다면, 그것들이 떨어질 때 여전히 본래대로 한 두 작은 싯구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던진다면 그 한 두 작은 싯구는 더욱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그것은 저자가 쓴 아름다운 시의 모든 형태를 상실할 것입니다. 지성이 없으면 전 창조 영역은 혼돈(카오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하고, 조화있게 하고, 목적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지성입니다. 지성이 없으면 우주는 암흑과 혼돈(카오스)입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창

조하셨읍니다.

103가지 요소가 스스로 무로부터 모아져서, 땅을 이륙하여 멀리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제트기로 계획 없이도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언제든지 나는 기꺼이 세속적인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적 물리학자가 될 것입니다 ! 만일 내가 기술자가 없는데도 큰 도랑에 다리가 놓아지는 것을 본다면, 작곡자가 없는데도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들을 수 있다면, 시인이 없는데도 놀라운 시 한편을 읽을 수 있다면, 디자이너가 없는데도 평범하고 단순한 옷을 지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본다면, 나는 진화론자가 되고 우연과 맹목적인 가능성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의 창조 뒤에는 지적인 목적이 있읍니다.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바라보십시다. 물리적인 법칙이 있읍니다. 이 법칙은 어떤 것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확장되고, 어떤 것이 차가워지면 그것이 수축됩니다. 즉 작은 분자들이 모두 안으로 움츠러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항상 경험합니다.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는 확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 버립니다. 우리는 밖으로 뻗쳐 나갑니다. 우리는 차갑도록 밀봉하는 모든 것을 개봉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수축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무리 속으로 움츠러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뜨거워질 때 그것은 확장합니다. 즉 어떤 것, 모든 것, 심지어 강철 조각까지도 확장합니다.

멤피스에 있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다리가 세워질 때는 뜨거운 여름철이었읍니다. 강철이 너무 확장되어서 건축가들이 중앙에 다리를 놓으려 할 때, 강철이 약 18인치나 늘어나 있었읍니다.

그러나 건축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몇 톤이나 되는 얼음을 가져와서 그 강철을 식혔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읍니다. 그 강철이 수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 있읍니다.

물은 차거워지면 0℃까지 수축되며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갑자기 이유나 설명없이 그것은 확장합니다! 만일 물이 0℃에서 확장하지 않거나 수축된 채로 있다면 그것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 버릴 것이며 돌처럼 해저로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세계는 남, 북극의 대빙하처럼 될 것이며, 대양과 바다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모든 조류는 멈추어 버릴 것이며, 세계는 죽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 안할 수 없읍니다!

생물학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생물학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에는 어느 정도의 염색체가 있고, 그 육체의 모든 세포에 동일한 양의 염색체가 있읍니다. 닭, 원숭이, 개, 소 등 각 동물의 모든 세포에는 일정한 양의 염색체가 있읍니다. 백여 년간 실험의 대상이 되어온 초파리는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녀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읍니다. 우리는 몇 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세포에 우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성의 정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여성의 난자에 23개의 염색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될 때, 염색체의 숫자는 46개를 이루어 기적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헌아식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작은 생명을 지으시고 호흡과 영혼을 주시며 이 작은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적적인 손길

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아래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는 질병이 증식하고 확장하는 병리학의 법칙이 있읍니다. 질병이 미쳐 날뜁니다. 그것은 전염됩니다. 세균이 번식합니다. 세계는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묘지입니다.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성홍열, 파상풍, 장티푸스의 세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에 묻혀있는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고양이, 죽은 쥐, 죽은 개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묻혀 있읍니다. 수 천, 수만 년 후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죽음의 세균들과 질병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중에 이 땅에 중요한 어떤 것을 놓으셨읍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것은 페니실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쥐와 죽은 고양이와 어떤 죽은 것을 묻을 때, 즉시 페니실린이 모든 질병을 파괴해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살아가도록 아름답고 건강한 세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있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슬럼가, 게토 그리고 나쁜 환경에서 인간 생활의 잡동사니와 위협해서 우리를 죽게하는 초라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나쁜 특성이 나온다고 말하는 심리학과 사회학의 법칙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특성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런 류의 번식지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법칙은 그러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 해 전,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의 번식지였던 서부 달라스에 두 남자 아이를 가진 해밀톤 가족이 살고 있었읍니다. 한 아이는 플로이드라 하였고, 다른 한 소년은 레이몬드라고 불리웠읍니다. 그 도시의 같은 지역에 클라이드 바로우와 보니 파커도 살고 있었읍니다. 레이몬드 해밀톤은 훈트빌 교도소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였읍니다. 클라이드 바로우는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총에 맞았고, 그의 여자 친구 보니 파커도 그와 함께 살

해당하였읍니다. 그러나 플로이드 해밀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 교도소로 보내어졌읍니다.

우리 제일 침례 교회 회원 중에 해리 랜킨 무어라는 교인이 있읍니다. 내가 그에게 침례(세례)를 베푼 적이 있읍니다. 이 여자는 서부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목사님, 플로이드 해밀톤을 만나러 알카트라즈감옥에 가주시겠읍니까?"하고 말하였읍니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셀 수 없는 철벽, 철문, 쇠창살을 지나서 플로이드 해밀톤을 만났읍니다.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의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따뜻하게 나의 손을 잡고, "만일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나를 살려 주신다면 나는 제일 먼저 당신 교회의 통로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겠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여러 해 후에 마침내 그는 석방되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때부터 그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였읍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기적입니다 !

그것은 우리 위에 있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법칙은 나라들이 부요하게 되었다가 부패하게 되며 마침내 속국이 되고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해안을 따라 나라들이 일어났던 형태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흥했다가는 망합니다. 나는 헷 사람을 본 적이 없읍니다. 나는 여부스 사람을 본 적이 없읍니다. 나는 모압 사람을 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보라고 하셨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살게 하겠다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을 위한 큰 군대가

일어났읍니다(겔 37장).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늘에 비치는 태양이 있는 한, 밤에 비치는 달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셨읍니다(렘 31 : 35~37).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조직이든 잠간 동안 번성하다가 다시 보면 그것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조직의 법칙입니다. 우리 눈 앞에서 분해되고 풀어져 버린 셀 수 없이 많은 조직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 18)고 하셨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시대의 종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읍니다.

>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교회]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
>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
>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계 21 : 9~11, 18 22 ; 1~3, 5).

하나님이 그의 태양을 하늘에 비취도록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계시하신 것처

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를 주셨읍니다.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며 우주적인 제일 요인(사실)은 하나님의 실재입니다 !